

정부, ‘천연가스’ 에너지 안보 강화 민간 비축 확대·AI 기반 위기예측

산업부, 천연가스 수급계획 공고
공급망 체계 개편·인프라 투자 확대
‘수급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우리나라의 총 천연가스 수요가 오는 2038년까지 연평균 약 0.94%씩 감소해 4100만 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전원구성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참여형 비축체계를 다지고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13년간(2026~2038년)의 천연가스 수요 전망과 도입·수급 관리, 공급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총 천연가스 기준수요는 올해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줄어든다. 용도별로는 가정·산업체 등에서 쓰는 도시가스용 수요가 올해 2356만 톤에서 2038년 2816만 톤으로 연

평균 1.50%씩 성장하는 반면, 발전용 수요는 같은 기간 2235만 톤에서 1284만 톤으로 연평균 4.51%씩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구성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발전용 수요의 극심한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관리 수요’를 별도로 도출했다. 이에 따른 총 수요는 2038년 4767만 톤으로 연평균 0.01% 수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수급관리수요를 토대로 인프라 확충과 중장기 도입 계약을 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가스 발전 수요 변동분은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스공사 등 공공 중심이었던 기존 비축체계에 자가소비용 직수입자 등 민간 기업의 참여를 넓히기로 했다. 새로 기지를 짓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과 민간의 가스 도입·재고 정보를 한눈에 관리하는 ‘천연가스 수급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AI 기반 위기 예측 시뮬레이션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가격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 노출을 줄이기 위해 중장기 기간계약 비중을 늘리고 유가, 가스 가격 등 다양한 가격지수 포트폴리오를 짜 가격 급등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도 대폭 이뤄진다. 정부는 민간기지 저장탱크 증설 등을 통해 2038년까지 최대 887만 톤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도시 가스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564km에 달하는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관망 매설이 어려운 소외 지역에는 주민 수요와 경제성을 따져 LPG 배관망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청다오국제맥주축제 행사장 내 K-푸드 편의점 모습.

/aT

aT, 청다오맥주축제 참가… K-푸드 소개

라면·과자·소주 등 제품 홍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 참가해 이른바 ‘팝업 편의점’ 운영을 통한 K-푸드 알리기에 한창이다.

aT는 오는 8월15일까지 열리는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다오국제맥주축제는 세계 3대 맥주축제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aT는 이번 축제에서 국내 식품기업 38개사와 함께 라면과 과자 등 ‘K-안주’, 소주를 활용한 ‘K-소맥’, 속취해소제품, 아이스크림·음료 등 총 209개 제품을 홍보·판매한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중국의 여름 축제를 상징하는 청다오국제맥주축제에서 K-푸드를 널리 알리겠다”며 “향후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

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

국내 농업과 기업, 지역이 다 같이 발전하는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가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생’이란 동반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는 농업·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플랫폼을 가리킨다. 단순한 국산 농산물 구매를 넘어, 제품화부터 판로개척·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농가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차별화된 상품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성과를 낸다. 이는 또 지역에 일자리 및 새로운 활력을

더해, ‘본인과 상대방 모두 이익 보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 식품·외식·유통 분야 기업 관계자, 생산자,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송미령 장관은 “상생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돕는 일이 아니라, 농업의 좋은 원료에 기업의 기술과 유통망을 더해 서로에 필요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식품기업뿐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과 청년 농업인·창업가까지 각자의 강점을 보태도록 연결하고, 좋은 제안이 실제 제품과 판로, 일자리로 이어져 더 큰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남, 9월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개최

기부 마라톤… 4500명 선착순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남)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를 위해 뜻깊은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연다.

한남은 국민 기부 마라톤인 ‘2026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를 오는 9월 1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7

일 밝혔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주최하고 한남이 공식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5km와 10km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다. 참가 모집은 이날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총 450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대회 참가비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고효율 가전 기기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업부, 미래차 ‘상생형 R&D’ 사업 본격 추진

완성차-부품사 생태계 직접 연결
국산화 등 3개 과제 240억 지원

정부가 미래자동차 핵심 부품의 공급망 지원과 기술 확보를 위해 완성차 대기업과 국내 부품업체를 기획 단계부터 하나로 묶는 ‘상생형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무너지는 부품기업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해외 독과점 부품을 내재화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충남 천안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완성차 수요기업 및 연구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계 협력 R&D 과제 협약식(MOU)’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신설된 ‘생태계 협력 R&D’는 완성차 기업의 실제 양산 계획에 맞춰 부품업체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도록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다. 과제 기획부터 기술 개발, 실차 검증, 그리고 최종 양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완성차와 부품사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긴밀하게 협업한다. 정부는 상용차 액추에이터 국산화 등 선정된 3개 과제에 대해 과제별로 3년간 80억 원씩, 총 24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개 과제는 오는 2029~2030년 완성차 양산 라인에 즉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선도 부품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대형 상용차용 액추에이터’를 국내 부품기업과 손잡고 개발한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9년부터 트럭과 버스 등 실제 양산차에 적용해 공급망 자립을 이룬다는 계획

이다. KG모빌리티(KGM)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성능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차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차종 확장형 원통형 셀 배터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차량 개발 기간과 비용을 낮추고, 2030년부터 양산차에 적용할 예정이다. 르노코리아는 점차 강화되는 국내외 배출가스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배출 시스템인 ‘LPG 직분사 방식(LPDi) 하이브리드 SUV’ 개발에 나선다. 부품기업이 핵심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 2029년부터 양산 라인에 투입된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지금 자동차산업은 전동화, 스마트화로 미래차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중”이라며 “미래차 전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완성차, 부품사가 함께 ‘원팀’이 돼 생태계 차원의 선제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농식품부, ‘우분 고체연료’ 기술개발·사업화

5년간 다부처 R&D 298억 투입

그간 농경지 과잉 살포로 하천 녹조와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던 가축분뇨(우분)가 발전소와 농가 보일러를 돌리는 친환경 고체연료로 탈바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서울 중구 씨앗원 서울역점에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9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다부처 연구개발(R&D)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수분이 많은 우분을 적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건조하는 저비용 공정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별도의 압축·성형 공정 없이도 농업시설 보일러 등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술을 확보해

농가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렇게 확보된 기반을 바탕으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과 ‘오염방지 기술 고도화’에 집중한다.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을 혼합해 발열량 3500kcal/kg 이상의 고품질 고체연료를 하루 15톤(총 4500톤) 규모로 생산하는 실증 시설을 구축한다. 나야가이를 330MW급 상용 발전설비 및 4MW급 열병합발전용 보일러에 적용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장고와 고용이, 공공부문 캐릭터 본선 진출

장애인고용공 2년연속 본선 경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대표 캐릭터인 ‘장고와 고용이’가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지자체·공공 캐릭터 페스티벌’ 본선 무대에 올랐다.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 페스티벌에는 전국 70여 개의 대표 공공 캐릭터가 본선에서 경쟁한다.

장고와 고용이는 2022년 탄생한 공단

대표 캐릭터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과 비전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종 수상작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투표는 다음 달 21일 오후 6시까지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하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